

“과거 연구물 비판 검토...연구시작”

김성철 동국대 교수, '나의 학문과 저서...' 발표
한국불교학회 40주년 동계 워크숍에서

불교학계의 만행인 한국불교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2월 1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동계 불교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나의 학문과 저서, 저자로부터 듣는 불교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술저서의 저자와 함께하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2005년부터 7년여의 연구 끝에 완성한 '특히 승랑-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에 대한 연구 과정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철 교수는 승랑 스님과 관련된 논문으로 제6회 정승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승랑 스님(僧朗, 450~530년)은 고구려 요동 출신으로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승랑은 지금부터 1500년 전 중국 난징(南京) 부근에서 교화활동을 했는데 그 가르침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방식으로 제자 승전에게 전수됐으며 이후 삼론학으로 집대성됐다”며 “그 사상적 토대 위에 천태교학과 남종선 수행론이

창출됐으며 남조 화엄학 역시 그 연원이 승랑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논평을 맡은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이에 대해 “‘승랑’이라는 고대 한국불교 인물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성철 교수는 이에 대해 “고익진 교수의 <한국의 불교사상>에서 ‘승랑의 종교적 공헌’을 읽은 후였다”며 “이후 2000년 불교학연구회 학술회의에서 박상수 박사가 발표한 논문 ‘승랑의 삼론학과 사제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논평을 담당하며 많은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김영진 연구교수의 연구 방법에 대한 질문에 김성철 교수는 “과거의 연구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비로소 나름의 연구가 시작된다”며 “승랑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유관자료 등을 검토해 선별하는 작업을 선행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7년 열린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모습.

불교학 학술단체의 대표격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불교학회는 1973년 7월 7일 창립 이래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널리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립해인 1973년 11월 9일 제1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1975년부터 학술논문집 <한국불교학>을 지금

까지 총 65권을 발행했다. 한국불교학회는 창립 20주년인 1993년부터 전국불교학술대회를 2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2006년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뒤에는 춘추계 전국불교학술대회 외에 봄 가을로 학술워크숍을 열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불교학회로 인해 불교학은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궤도에 올랐다.

노덕현 기자

문경 봉암사 일원 명승으로

문화재청 문경 봉암사 및 희양산 일대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開慶 曦陽山 鳳巖寺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2월 1일 지정 예고했다.

문경 희양산은 암봉(巖峯)이 아름다운 산으로 희양산을 배경으로 통일신라시대 지증 대사(智證大師; 824~882)가 창건한 봉암사(鳳巖寺)가 있다. 봉암사 주변에는 백운대계곡(白雲臺溪谷)이 있다.

문화재청은 “희양산과 봉암사, 백운대계곡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봉암사 경내에는 문경 봉암사 극락전(鳳巖寺 極樂殿, 보물 제1574호), 봉암사 일주문(鳳巖寺 一柱門, 경북 문화재자료 제591호),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 국보 제315호), 지증대사탑(智證大師塔, 보물 제137호), 봉암사 삼층석탑(鳳巖寺 三層石塔, 보물 제169호) 등 다수의 불교 문화재가 있다.



또 봉암사는 통일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 선종의 아홉 문파)의 하나로 지금도 조계종립 특별선원으로 선(禪) 수행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백운대계곡 일대는 신라 말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 선생의 각자(刻字)와 바위에 조각된 봉암사 마애보살좌상(鳳巖寺 磨崖菩薩坐像, 경북 유형문화재 제121호)이 남아 있어 역사문화 경관 가치가 높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기록유산 관련 목소리 경청

국가편찬위·고전번역원·국학진흥원 사례발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이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학술원은 1월 31일 동국대 총무로 영상센터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정보화 사업을 수행해왔던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유관기관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불교학술원이 진행 중인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ABC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류준범 국가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연구사는 '한국사 자료 전산화의 경험과 전망-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편찬위원회가 구축한 디지털 역사 자료인 전자사료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설명했다.

류 연구사는 “디지털 역사자료 구축은 사료의 편찬으로 평가받는다”며 “자료 이용자가 사료비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원본 자체의 오탈자 등 오류, 식별불가능 문자의 표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禪文化研究> 학술등재지 선정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범진)이 발간하는 학술논문지 <선문화연구(禪文化研究)>가 학술등재지로 선정됐다.

<선문화연구(禪文化研究)>는 선리연구원 이영 2회 발행하는 학술지로 현재 13집까지 출간됐다. 2006년에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2009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선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학(禪學)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등재



지 선정을 계기로 소장학자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옛서울의 불교와 건축 관계는?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월 1일 세미나서 조영

동아시아 고도(古都)의 불교와 건축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유진)은 2월 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한·중·일 3국 고도의 도시 불교와 건축'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무왕 동국대 전임연구원은 '경주 도성과 불교건축'을 통해 경주에서 사찰을 비롯한 불교건축물이 도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조망했다.

이날 문무왕 연구원은 “경주 지역에 사찰이 건립된 것은 신라 중고기”라며 “이 시기에는 불교수용과정에서 건립됐으며 국가주도로 불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연구원은 “왕경이 확장되며 사찰에도 변화가 시작됐다”며 “주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건립이 시작돼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통일기 이후에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성전사원으로 까지 사찰의 역할이 확대 된다”며 “7차 가람설, 금일택 등 개인소유 사찰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이런 건립 형태가 신라만의 독특한 형태가 아닌 동아시아 사찰조영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넓지 않은 경주일대를 활용해 남산 일원에 밀집된 사찰 조영은 신라 불교문화 만의 단적인 특징이라고 밝혔다.

지에용치양 교수는 중국 섬서사범대 교수는 '당대 수도 장안성의 불교사원 건축' 발표

韓 경주 남산 일원 밀집 조영
中 장안 구역별 분배 배치
日 나라 지역 교류파라 독특

를 통해 “당대는 중국불교의 변형기였고 중국 불교사원 건설의 변성기였다”며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는 사원이 널리 분포되었고 불탑이 즐비했다”고 소개했다.

당인 위술의 <양경신기>에는 당 장안성에 91개의 불교사원이 있었다고 기재돼있으며 송인 송민구의 <장안지>에는 당 장안성에 불교사원이 104개 있었다고 기재돼 있을 정도였다.



경주 불국사 일대 항공 사진. 밀집된 형태가 눈길을 끈다.

지에용치양 교수는 “당 장안성은 구획을 나눠 불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라며 “백여개의 구획 중 불교사원 구획이 정해졌으며 이 구획에는 3~4개의 불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코자키 카즈히사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은 “7~8세기 일본의 도시사원” 발표를 통해 일본 도시사원에는 백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일본 최초의 사원은 유력 호족이었던 소가노 우지(蘇我氏)가 건립한 비조사”라고 밝혔다.

비조사는 588년 백제로부터 승려와 장인을 데려와 건립하기 시작해 불당과 탑, 회랑 등을 만들었고 596년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하코자키 연구실장은 이어 “일본에는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범룡사(호유류유지) 서원(사이인), 약사사(아쿠시지) 동탑 등이 있다. 당시 국가 사원 뿐만 아니라 지방사원에서도 독자적인 문화 교류가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지역 교류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힌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험컷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매듭트를 끼워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회 험컷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